

'RM 추천' 은희영 "저의 최선 '마음'과 '호프'에 담았어요"

재즈 싱어송라이터... '마음'·'호프' 싱글 발표

백보컬·코러스, RM·이이언·홍이사 등 참여

"2019~2020년에 음악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저의 최선을 '마음'과 '호프(Hope)'에 담았습니다."

재즈 싱어송라이터 은희영이 작년 5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 싱글 '마음'과 '호프(Hope)'는 코로나19 속 잔잔한 울림을 안겼다. "무언가 그 어둠 속에 빛을 낸다면"('마음'), "작은 희망(Just a little bit of hope)"('호프')을 노래했다.

거창하기보다 작고 소중했다. 입소문을 타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공감해나갔다. 코로나19가 여전한 2021년에도 그 위로는 유효하다.

최근 서면으로 만난 은희영은 "'마음'은 코로나19가 도래한 시기에 저란 인간, 저란 뮤지션이 할 수 있는 것을 담은 노래"라고 소개했다. "의료진들, 선생님들, 예술가들, 자원봉사자들, 기술직 다들 본인이 가진 것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호프'에는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힘을 보탤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과 '못(Mot) 이이언이 백보컬, 홍이사 등이 코러스로 참여했다.

특히 RM은 앞서 '마음'과 함께 은희영이 2019년 8월에 발표한 '걷다'를 방탄소년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천하기도 했다. "RM 덕분에 알게 됐지만 음악 자체가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RM이 '호프'에 참여한 건 우연이었다. "제가 뮤지션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다 같이 노래하는 것에 뜻이 있었던 때였어요. 노래가 거의 완성돼 갈 즈음에 RM 씨에게 새로 나온 곡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더니, 작업실로 흔쾌히 와줬죠."

은희영은 방탄소년단의 곡과 앨범에 실린 메시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대단하고 긍정적인 이 시대에 필요한 내용과 위로를 담고 있다"고 여겼다. "그런 아티스트와 나

름의 조그만 협업을 하게 되는 건 늘 설렌다"고 했다.

은희영은 기타리스트로 음악 경력을 출발했다. 곡을 쓴다는 것이 본인에게 두렵고 겁이 났는데 연습을 하고 자주 쓰다 보니, 어느새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을 듣게 됐다.

어릴 때부터 포크·클래식·재즈를 즐겨들은 '음악 마니아' 부모의 영향으로 음악을 끼고 살았다. "이런 부모님 곁에서 자란 덕분에 '듣는 귀'가 형성됐죠.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건 어릴 때 뉴질랜드 유학시절이다. 현지 공중과 4번 채널에선 뮤직비디오만 계속 틀어줬다. 킨(Keane), 그린데이(Green Day), 유투(U2), 프란츠 페르디난드(Franz Ferdinand) 등 유명 록밴드의 영상이었다. "그 영상들을 보고 일렉 기타를 연주하고 싶어졌어요. 생일선물로 잘라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듣는 음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에릭 클랩튼, 존 메이어, 제프 버클리 등 기타를 연주하며 곡을 쓰는 뮤지션들이었다. 록 음악에서 점점 재즈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 은희영은 '재즈 뮤지션 발굴의 산실'로 통하는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했다.

은희영이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눈도장을 받기 시작한 건, 2019년 4월 발매한 데뷔 EP '그루브 머천트(Groove Merchant)'부터다. '머천트'는 상인이란 뜻.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 '24시간 편의점' 같이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파는 상인'이란 콘셉트가 수록된 곡들과 잘 어울린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나이트 시프트(Night Shift)' 여섯 줄 가사를 위해 두 달 동안 20쪽이 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주곡은 그 곡을 연주하는 '악기의 성격'에 더 신경을 쓰지만, 보컬곡은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가사가 있다는 건 좀 더 '명확한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청자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생깁니다."

올해 안에 신곡 발매를 계획 중인 은희영은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겠다는 자세다. "늘 꾸준히 쉬지 않고 고민하고, 설계하고, 실패도 하지만 계속 발전하는, '영혼 있는 기계' 같은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김요한 "위아이 데뷔 100일...방탄소년단 뷁가 롤모델"

"위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친해...남고 분위기"

그들 '위아이(WEI)'의 김요한이 '방탄소년단(BTS)' 뷁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는 김요한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김요한은 이날 '위아이' 데뷔 100일이라고 밝혔다.

김영철은 "멤버들이랑 형제처럼 친하다고 하는데 다른 보이그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고 물었고, 김요한은 "위아이는 서로의 관계가 감쪽 놀랄 정도로 친하다. 남고 분위기"라고 답했다.

롤모델로는 방탄소년단을 꼽았

다. 김요한은 "지금의 아이돌들은 방탄소년단 선배들이 무조건 롤모델이지 않을까 싶다"며 "모든 선배님을 다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뷁 선배님을 많이 좋아하고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요한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관련 비하인드도 전했다. 당시 세븐의 '와썹'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회사 들어간 지 6일인가 5일 만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오디션 미팅을 보러갔다. 합격이 됐다든 소식 듣고 퍼포먼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춤도 못추고 랩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뭐 하나 해보자' 하게 힐리스를 신었다. 심사위원 트레이너 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방법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요한은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김영철은 "연예인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김요한은 "처음에 반대하셨다가 성인이 되고 다시 말씀 드렸을 때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아버지가) 지금은 제 컷즈를 차고 다니신다"고 웃었다.

김요한은 웹드라마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첫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학창시절의 풋풋하고 몽글몽글한 첫사랑의 추억을 다시 소환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맡은 '차현' 캐릭터에 대해서는 "제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동글동글하고 스윗한 성격인데 무뎠직한 캐릭터"라며 "그래도 제 모습이 살짝살짝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상대 배역인 배우 소주연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100점"이라고 자신했다. 김요한은 "소주연은 캐릭터와 일치한다. 굉장히 발랄하고 밝고 거리감 없다. 잘 웃고 보조개도 예쁘다"라고 칭찬했다.

장나라·정용화, KBS '대박부동산' 주연

생활밀착형 퇴마 드라마

KBS 2TV는 새 수목드라마 '대박부동산'에 배우 장나라와 정용화가 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선보일 이 드라마는 귀신이 출몰하거나 사람이 죽어 나간 부동산을 퇴마해 깨끗한 물건으로 만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장나라는 대박부동산 사장이자 퇴마사인 홍지아를, 정용화는 귀신을 이용해 돈을 버는 퇴마 사기꾼 오인범을 연기한다. 정용화는 '더 패키지' 이후

4년 만의 복귀작이다.

대본은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하수진, 이영화, 정연서 작가가 집필하며, 연출은 '학교 2017', '맨몸의 소방관', '간사치열전' 등의 박진석 PD가 맡는다.

제작진은 "집을 향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과 그로 인한 갈등을 되짚어주는 생활밀착형 퇴마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답답했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서늘한 심장 쫓겨 휴먼 드라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향기·류현경·염혜란 주연 영화 '아이'

내달 10일 개봉

배우 김향기, 류현경, 염혜란 주연의 영화 '아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영화 '아이'가 설날 연휴 직전인 오는 2월10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아이'는 아동학대 졸업반의 보호 종료 청년 '아영'(김향기)이 생후 6개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영체'(류현경)의 베이비시터가 되면서 시작되는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날 공개된 '아이'의 스틸 속 김향기와 류현경의 모습은 영화가 선보일 파스한 감성을 담고 있다. 두 배우의

연기 호흡은 물론 엇갈린 시선을 통해 어떤 관계와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증을 더한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와 '증인', '우아한 거짓말' 등을 통해 섬세한 연기력을 보여온 김향기가 보호 종료 청년으로 아동학대 졸업반 대학생 '아영' 역을 맡았다.

또 류현경이 6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미혼모 '영체' 역을 연기한다. 영화 '기도하는 남자', 드라마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등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해온 류현경이 베이비시터 아영을 만나 고단한 삶 속 위로를 필요로 하는 영체의 모습으로 공감을 안길 예정이다.

양속 케미 '툰과 제리' 내달 개봉...클로이 모레츠 출연

라이브 액션·CG 애니메이션 섞인 하이브리드 영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라이벌 콤피디의 대명사 '툰과 제리'가 실사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한다.

12일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에 따르면 '툰과 제리' 실사 애니메이션은 오는 2월 개봉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툰과 제리'는 자타공인 장난꾸러기 라이벌 콤피디 톰과 제리의 뉴욕을 발작 뒤집을 역대급 대소동을 그린다.

이번 영화는 라이브 액션과 CG 애니메이션이 섞인 하이브리드 영화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툰과 제리'는 1940년 첫 등장 후 80년이 넘는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다. 슬랩스틱 코미디의 전설로 불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양속 관계의 대표적 캐릭터임에도 환상의 짝궁이자 커플로 케미를 자랑

한다. 톰과 제리는 이번 영화에서 뉴욕 대도시의 화려한 조망 아래 새로운 무대를 배경으로 짝짜한 호흡을 펼친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알뜰지만 미워할 수 없는 제리의 짝짜함이나 여전히 제리에게 온갖 수난을 겪는 톰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특히 클로이 모레츠와 마이클 페나, 켈 정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해 캐릭터들과의 찰떡 호흡에 기대감을 모은다.



아동학대 문제 다룬 영화 '고백' 내달 개봉...박하선 주연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 관객들의 공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영화 '고백'이 다음달 관객들을 만난다.

11일 배급사 리빙픽처스에 따르면 배우 박하선 주연의 영화 '고백'이 오는 2월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고백'은 7일간 국민 성금 천원씩 1억원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유괴사건이 일어난 날 사라진 아이, 그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분노한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사를 의심하는 경찰, 나타난 아이의 용기 있는 고백을 그린 범죄 드라마다.

문구처럼 학대하는 부모, 구해주는 유괴범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아이러니한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를 비롯한 다양한 폭력에 대한 현상을 고찰한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 관객들의 공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하선이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들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오순' 역을 맡았다. 이 작품으로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문 배우상을 받은 박하선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응시력 있

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하선은 인터뷰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해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자세히 보지도 못할 만큼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했다. 이 영화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하윤경이 각종 폭력근절 캠페인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의욕 충만한 신입 경찰 '지원' 역을 맡아 사건을 추적해가며 긴장감을 높



이는 역할을 한다.